

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2019년 6월 14 일 메시지

오푸스데이 단장 페르난도 오
카리스 몬시놀은 깊은 즐거움
과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
감사를 드리며 설립자인 호세
마리아 성인의 대축일을 축하
하며 축제를 지내는 6월을 맞
아 우리를 격려하였습니다.

2019-6-17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
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!

이번 6월 동안, 2일 주님 승천 대축일
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29일에 있을
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
까지 우리는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
신앙의 축제를 지냅니다. 각각 모든
대축일들은 저마다 특별한 분위기를
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
랑에 드리는 감사함을 증진시키기 위
한 기회를 줍니다. 따라서, 이러한 축
제들은 오푸스데이의 센터들과 센터
비상주 독신회원들(Associates) 및 기
혼 회원들(Supernumeraries)의 가정
에 더 열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하여
우리의 즐거움을 나누도록 초대합니
다.

비록 우리의 즐거움이 모든 순간, 모
든 환경에서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
않을 것일 지라도, 인간적인 기쁨을
우리가 경험할 때와 인간적인 고통에
직면할 때 모두 우리는 항상 행복해

야합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

“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,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.” (요한 15.11)

또한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.

“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. 거듭 말합니다. 기뻐하십시오.” (필리 4.4)

그러므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약함과 우리의 죄의 경험은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. 마치 돌아온 탕자(루카 15. 22-24 참조)에게 일어난 것처럼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느님의 항상 끊임 없는 사랑받음의 그 확실함에서 생겨납니다. “위대한 잔치, 회개의 그 깊은 즐거움” (1974년 2월 14일 서간 7 항)

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
우리는 평화와 즐거움의 씨앗을 뿌리
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

로마, 2019년 6월14일

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페르난도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opuseudei-danjang-
monsinyolyi-2019nyeon-6weol-14il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2019nyeon-6weol-14il/)
(2026-2-23)